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서 제출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께도 직접 전달



청와대에 건의서 제출

총장공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념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건의서를 100만 족친의 숙원을 담은 1만여 명의 대표들이 서명한 서명부와 함께 지난 1월 11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비서실에 전달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직접 전달하였다.

대중회에서는 이 역사적인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작년 초부터 100만 족친의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전국 방방곡곡 지역총친회 간부들과 일부 국민들이 동참하는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왔다.

권해옥 회장은 강기정 정무수석실 강희중 행정관에게 권율도원수의 역사적 공훈과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1990년 문화공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권해옥 국회의원이 이어령 문화부장관에게 국가의 운명이 풍전 등화와 같은 임진왜란 시에 "바다는 이순신장군, 육지는 권율장군"의赫赫한 전공으로 두 사람 공히 선무 1등 공신에 책봉되었으나 이순신장군은 정부에서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권율장군은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나 유림들이 봉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역사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왜곡이다. 흔히 행주치마라고 불리는 부녀자들의 호국정신마저 선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민족정기를 드높이는데도 결

코 바람직하지 않으니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이어령 문화부장관이 1991년 3월 14일 행주대첩제를 직접 주관하여 봉행하기도 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행주대첩을 재평가하여 반드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2019년 3월 14일은 제426회 행주대첩 기념일이다. 올해부터는 꼭 정부에서 기념행사를 주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영익 수석부회장과 권영성 상임부회장 등은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이야말로 잘못된 역사의 적폐 청산이자 100만 안동권문의 숙원사업이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기식 부회장은 공이 같으면 행사도 같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공정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희중 행정관은 행주대첩 기념행사가 3월 14일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안동권문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 안동 임청각의 경우 격상을 시킨 예가 있기는 하다고 말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전 10시 권해옥 회장은 권오을, 권경석 전 국회의원, 권영익 수석부회장, 권영성 상임부회장, 권기식 부회장, 권혁중 이사, 권행완 편집부장 등과 함께 국



문희상 국회의장께 직접 전달

회의장실을 방문하여 행주대첩제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건의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권해옥 회장은 정부에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건의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경과를 설명하며 100만 안동권문의 족친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권율장군 묘역이 있는 양주군은 본인의 지역구라고 말하며 초등학교 시절 장흥에 있는 권율장군 묘역을 그 당시 소풍 가는 코스여서 매우 친근감이 있다고 회상했다.

권경석 전 국회의원은 행주대첩제는 현재 지역 행사로 전락된 상태다. 행주대첩은 수도 한양을 수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승전이므로 이순신장군의 한산대첩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권기식 부회장은 박정희 대통령 때 총무공 이순신을 국난극복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시키다보니 다른 인물들을 상대적으로 격하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영익 수석부회장은 이어령 장관 재임 시에는 직접 참석하기도 했고 국비 지원도 있었다. 같은 시대 동일한 공적을 세웠음에도 이순신장군 기념행사는 웅장하고 권율장군 기념행사는 매우 빈약하다. 국가행사로 격상이 꼭 필요하다. 의정계서 앞장서서 역사적 결단을 동참해 주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후세 사람들에게 이순신장군도 국민들 마음속에 있지만 행주대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주치마 역시 국민들 마음속에 살아 있다고 말하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

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암 투병 중인데도 불구하고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100만 족친들의 간절한 뜻을 관철시키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고개를 숙고 참석하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 권양숙 여사에게 서한 전달

청와대와 국회에 건의서를 전달한 후 곧바로 권양숙 여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대중회에서 지난 1월 11일(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께 건의한 역사적 배경과 추진내용 등을 설명하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안동권문 최초로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 건의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는 안동권문 1천년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안동권문의 위상 제고와 새로운 역사 재정립을 위해 동참한 100만 족친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편집국장 권행완

### 권오을 고문 장학금 1천만원 기증

권오을 고문이 대중회 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기증했다.

당초에는 능동장학회를 대중회에서 인계받으면 2억 상당의 오피스텔과 이에 따른 임대료를 대중회에 기증하려 했으나(본보 2017년 12월 1일자) 능동장학회가 아직까지 대중회로 인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여서 부득이 잠시 보류 중에 있다.

그래서 올해에도 대중회에 장학금 1천만원을 기증하게 된 것이다.



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 정기총회 시에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지금이라도 대중회장이 능동장학회 이사장직을 겸직할 수만 있다면 즉시 오피스텔을 기증할 예정이다.

이번에 기증한 장학금 1천만원은 지역총친회장들의 추천을 받아

### 권노갑 고문 청와대와 국회 건의서 제출에 큰 역할



권해옥 회장, 권노갑 고문, 권경석 전 국회의원, 권기식 부회장(왼쪽부터)

권해옥 회장은 지난 1월 9일 오전 12시 조선히에서 권노갑 고문과 권경석, 권영길 전 국회의원, 권기식 부회장, 권행완 편집국장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하는 문제를 상의했다.

권노갑 고문은 건의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역사적 당위성과 그 추진 경과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직접 청와대와 국회 관계자들에게 연락하여 제출 시기 등을 조율하였다.

권노갑 고문의 큰 역할 덕분에 100만 족친들의 숙원사업인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건의서를 적기에 제출할 수 있었다.

### 2월 임원 회비 납부 내역

<b>&lt;부회장 회비&gt;</b>	
권홍사(주)반도건설 회장	1,000,000원
권혁찬(회장)	500,000원
<b>&lt;이사 회비&gt;</b>	
권기성(서울)	300,000원
<b>&lt;찬조금&gt;</b>	
권순택 상임부회장	2,000,000원
<b>총</b>	<b>3,800,000원</b>

안동권씨대종회

## 謹 賀 新 年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 서명운동에 감사드립니다



**권율도원수의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은 정당한 역사 재평가입니다. 그동안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족친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족친 여러분의 애국애족의 마음을 담아 국가행사 격상 건의서를 지난 1월 11일(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건의하였습니다.**

**족친 여러분의 서명은 국가행사 격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안동권씨대종회 회장 권해옥